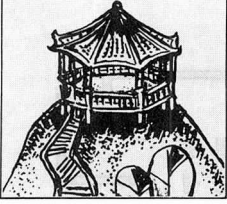


八角亭



“생명수”를 지키는 파수꾼

이 정 규

금수강산! 우리의 아름다운 자연을 흔히 일컫는 말이다.

낮고 부드러운 산에 도란도란 흐르는 시냇물, 수다스러운 종달새, 여기에 빨래하는 아낙네들의 이야기와 벌거벗고 미역감는 아이들의 고함소리들…… 이러한 정경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들 주변의 어디에서나 흔히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떠한가? 아이들이 물장구치던 개울에서는 썩은 물이 흐르고, 악취가 코를 진동하기 때문에 그 속에 발을 담그기는 커녕 근처에 가지조차 꺼려하게 되지 않았는가. 이제 이러한 현상은 “수질오염”이란 단어에 익숙해진 우리들로서는 극히 당연한 일로 되어 버렸다.

최근 두차례에 걸친 낙동강 수질오염사건을 비롯한 일련의 사건은 흥청망청 쓸 수 있다고 생각했던 물이 상당히 제한적이기도 하거니와 그 제한되어진 물이 심각하게 오염되어 우리의 삶까지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물 자체가 바로 우리의 “생명”임을 다시 한번 인식시켜 주었다. 주변 곳곳의 약수터엔 깨끗한 물을 얻기위해 사람들이 몰려들고 이젠 생수를 판매한다는건 기정사실화 되어 버렸으며, 정부는 재원조달방안

으로 수도료를 대폭 인상, 깨끗한 물을 공급하겠다는 약속을 되풀이한다. 이에 사건이 터질적마다 듣는 소리들로 국민들의 귀는 익숙해져 버리고만 것이다. 으레 듣는 소리쯤으로 우리들이 금세 잊어버리곤 하는 것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실은 나만 깨끗한 물을 마시면 된다는 생각과 물은 국가에서 깨끗이 만들어 공급한다는 방관적인 자세에 있다는 것이다. 물론 보다 깨끗한 물을 제공하는 것도, 물을 정화시키는데 주도적인 역할은 정부가 해야한다는 것도 당연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 국민 모두가 물을 지키는 환경 감시자가 되어야 한다.

지금부터 더 이상 오염되지 않도록 보호·관리함으로써, 우리의 자연 특히 물은 특유의 자정능력과 함께 생명력을 찾아가며 동시에 그 생명력을 배로 우리에게 되돌려 줄 것이다. 고기한 점을 더 먹기 위해 노력해 왔던 우리들이 이제는 깨끗한 한방울의 물을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하여 모두가 파수꾼이 되어야 한다.

“물은 생명이고 우리는 이것을 지키는 파수꾼”임을 다짐하고 행동에 옮기자.

[독자·수원시 권선구]

“八角亭”은 會員여러분과 讀者여러분의 쉼터요. 토론장이다. 自然을 사랑하고 畏敬하는 녹색운동에 참여하는 이의 거리낌없는 提言과 熱情의 글월을 기다린다. (200자 원고지 5매 내지 10매이내)